

2/12/17

설교 제목: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태 6:19-34

- (마 6: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 (마 6: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 (마 6: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절판주** 눅 12:34, 눅 11:34
- (마 6: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 (마 6: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 (마 6: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 (마 6: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 (마 6: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 (마 6: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 (마 6: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 (마 6: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 (마 6: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마 6: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염려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아 보겠습니다.

염려란 헬라어로 '메림나오' 나뉘, 분열이란 뜻입니다.

즉 마음이 나뉘는 것,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봉독하실 때에 혹시 '염려'라는 단어가 몇번이나 나오는지 세어 보셨습니까?

6 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는 365 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일년 365 일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의미라고들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인간이 세상 살면서 그만큼 많은 염려를 하고 산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성도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 6: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되어 앞절들에 대한 결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 절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마 6: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마 6: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 6: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마 6: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마디로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곧 의식주를 염려하는 것으로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아 맞추어 볼까요?

“아이구, 예수님!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세상 물질 모르는 참으로 답답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뿐만 아니라 요즈음 돈만 있으면 안되는 일 없습니다. 머니 머니해도 머니가 최고지요.”

우리는 물질 만능 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점점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 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돈, 돈, 돈 하다가 어느새 돈을 하나님 자리에다 올려 놓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하신 말씀으로 물질,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 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 6: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신이 준 목숨과 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들을 예비해 놓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둘째 날은 하늘을, 셋째 날은 육지와 육지의 식물과 바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은 하늘에 사는 조류와 바다에 사는 어류를, 여섯째 날은 육지에 사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 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여 40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40 년동안 그들은 농사 한 번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사막에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 목마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40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0 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다거나 옷이 없어 얼어 죽었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이 세상 삶 뿐만 아니라 저 세상 삶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 세상 삶을 위해 하늘에 거처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요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 (요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 (요 14: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결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염려대신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 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 (마 6: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 (마 6: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 (마 6: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 (마 6: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은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내려주는 은혜로 햇빛, 공기, 물 등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 특별 은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허락하는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 예를 든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질 들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허락하시는 일반 은혜를 입고 삽니다.

반면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반 은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선택 받은 자에게 허락하는 특별 은혜까지 입은 자들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입고 사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질 들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잘 돌보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은혜로 구속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왜 돌보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롬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못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역장이 무너집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 6: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 6: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스라엘 수상이었던 매나헴 베긴과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의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긴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하여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 되었습니다.

베긴 수상은 집무실 테이블에 놓여 있는 세 대의 전화기를 보고 각각의 용도를 물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한 대는 행정부와, 다른 한 대는 러시아와, 나머지 한 대는 하나님과 통화하는데 쓰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역시 레이건다운 재치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자 베긴 수상은 대뜸 “그럼 하나님과 통화할 때 통화료는 얼마나 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빙그레 웃으면서 “일만 달러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베긴 수상의 초청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어 수상 집무실로 안내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거기서 자신의 집무실과 똑같은 세 대의 전화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레이건 대통령도 전에 베긴 수상이 했던 것과 같이 세 대의 전화기에 대한 용도를 물었습니다.

베긴 수상은 곧바로 한 대는 국회와, 다른 한 대는 비상시 이집트와, 나머지 한 대는 하나님과 통화하는데 사용한다고 대답했고 레이건 대통령이 “여기서는 하나님과 통화할 때 얼마나 냅니까?”라고 되물었으며 이에 베긴 수상은 “15cent”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레이건 대통령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쌀 수 있습니까?”라고 했고 이에 베긴 수상은 빙그레 웃으며 “이곳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비싼 장거리 통화료를 부가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한방 먹은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말을 애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 13: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셋째,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 6: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적극적인 사고(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을 쓰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연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대부분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 약 40%는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는 일이며 22%는 걱정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입니다.

또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고 4%는 걱정해 보았자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 96%는 쓸데없는 걱정이고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4%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걱정, 염려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삶이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식주, 건강, 사업, 자손, 미래 등등이 여러분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수습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시 121: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 121: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전지전능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의 우선 순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나오는 '구하라'라는 말은 요구하라라든가 기도하라는 뜻이기 보다는 '애써 노력한다' '부단히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삶의 목적을 세상의 성공과 행복에 둡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둘 때 다른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과 같이 삶의 우선 순위를 거꾸로 두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삶의 순서를 거꾸로 놓고 산다면 우리는 의식주에 대한 염려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사는 역설적인 삶의 비결이요 방식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믿는 자 답게 사시기 바랍니다.